

## 번역문화의 허술한 구멍

21세기를 몇년 앞둔 오늘날 이 시대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들어와 있다. 체계와 질서가 무너지고 기존의 이념과 가치가 부서질 때 그러한 역사의 아우성 안에 있는 각 개인은 어떻게 이 세계와 사회를 이해할 것인가. 가치의 공백이 가져온 혼란과 방향의 거리에서 '책'은 불안한 이들에게 마지막 위안이다.

우리가 「출판저널」 통권100호를 기념하는 특집으로 '미래를 위한 오늘의 명저'를 사회각계 지식인들로부터 추천받아 소개함은, 책임기를 통해 평온을 찾으려는 다수 독자의 마음을 대신한다. 선정된 60여종의 책은 애초 100권을 채우려던 기획의도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이다. "번역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국내외 저작 모두"를 추천대상으로 한 다소 포용적인 조건에서도 이 시대 혼돈을 비출 미래 전망적인 책들을 찾는 작업은 그리 간단치가 않았다.

외국저서가 대부분인 가운데 국내 번역본을 자신있게 권하는 추천자는 드물었다. 번역본이 신통찮아 추천할 수 없다는 지적으로 제외된 책들도 많았다. 그나마 선정된 60여종의 90%가 번역본으로 소개된 것은 독자를 위해 가능한 국내 번역출간된 것으로 소개하려는 추천자의 배려가 컸다.

여기서 우리는 한국출판의 낙후한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수많은 출판사들이 '인스턴트성' 베스트셀러의 아류를 유행처럼 좇을 때, 선량

한 독자들의 지적인 방랑은 계속될 터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경제대국에 앞서 문화대국임을 말해주는 것이 있다. 지난호에 실린 서평 가운데 일본인 저서의 참고문헌 목록을 자세히 살펴보니 외국저서조차 원서는 드물고 대부분 일본 국내번역 텍스트로 채워져 있었다. 학문을 뒷받침할 번역도서의 층위가 그만큼 깊고도 넓다는 반증이다.

90년도 우리나라 번역도서는 총 3,366종이었다. 전체 발행종수(41,712종)의 약 12%인 그 가운데 과연 이 시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책은 얼마나 될지. 출판저널이 전문서평지로서 100호까지 이끌어온 것은 출판의 안팎성장이 그 밑거름이었을진대, 기념특집에서 우리 출판의 허술한 구멍을 들여다보는 일은 씁쓸하다. 프랑스 어느 서평지는 판매부수가 90만이라는데, 우리가 그 숫자를 부러워하려면 우선 제대로 된 번역본이라도 마땅히 추천할 정도의 번역문화는 가져야 가능할 것 같다. —김지원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책의 문화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도서관은 여러가지 기록이나 유물들로 보아 책의 출현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앗시리아 니네베의 방대한 점토책 도서관이 원시 고대왕국의 대표적 도서관이라면,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등의 도서관은 고대 귀족사회 개인도서관의 모습을 짐작케 해준다. 이중 로마 귀족사회의 도서관은 과연 어떠한지를 김세익의 「도서 인쇄 도서관사」(종로서적, 1982)에서 발췌해 다음에 소개한다.

로마인들은 농업과 통상을 주로 하는 현실적 생활인들로서 문예에 대해서는 관심이 희박했다. 그러나, 기원전 200년경부터 시작된 로마제국주의의 결과 로마인들은 점령지로부터 귀족품과 더불어 책을 전리품으로 국내로 반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로마인들이 도서에서 어떤 사상을 얻기보다는 단순히 책 자체를 로마 도서관의 서고에 두기 위한 것이었다. 옛날에 책은 권력이나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에밀리우스를 들 수 있는데 그의 도서관은 로마의 도서관 중 정보로서의 장서를 가진 최초의 것이다. 그는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장군으로서 기원전 168년에 마케도니아의 프로세우스 왕을 정복했을 때, 왕의 도서관 내의 책을 국내에 가져와서 그의 개인장서로 만들었다. 아에밀리우스 이후로 로마 정복자들은 전쟁의 전리품으로

책을 국내로 가져오는 것이 통례였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장서는 기원전 86년에 아테네를 점령한 로마 장군 술라의 경우로서, 이 장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장서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유명한 장군으로서 루쿨루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기원전 67년에 폰테스의 미트리데타스 4세를 공략해서 왕의 장서를 포함한 많은 책을 소아시아 정복지로부터 가져왔는데, 그 장서를 로마에 있는 그의 개인 도서관에 포함시켰으며 또 가져온 도서들을 공개시켜서 지식인과 학자들에게 이용케 하였었다. 이리하여 기원전 1세기 말경부터 도서수집의 풍조가 로마 귀족사회에 유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로마제국 절정기의 수백년 동안에는 부유층 로마인과 학자들 사이에 책 수집의 취미가 더욱 보편화되어 갔다.

또한, 의사와 법률가를 포함한 일반 로마인들이 장서를 수집하여 상당한 규모의 개인 도서관을 세웠다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키케로는 그의 장서를 매우 소중히 다루어 저택 중 가장 좋은 방을 택하여 보관하였다. 로마인 중에서도 가장 박학했다고 전해지는 바로도 대규모의 개인도서관을 가졌으며, 키케로의 친구인 앳티쿠스는 로마 최초의 출판자였으며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상과도 경쟁할 정도로 규모가 컸다. 앳티쿠스는 또한 20,000개의 두루말

이책을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세웠는데 이것은 의사 삼모니쿠스와 비교하면 작은 것이지만, 그는 삼모니쿠스보다 약 3세기후 60,000권의 두루말이책을 소유했다. 이 장서는 우연히 황제 고르디안 2세의 손에 들어가서 그에 의해 공공도서관에 공개되었다.

네로황제의 비서인 에파프로디투스는 30,000권의 두루말이책을 소장한 개인 도서관을 가졌다. 플라타쿠스(Flaccus, A.D. 34-62)는 시인이었는데 700권의 두루말이책으로 구성된 비교적 작은 도서관을 가졌지만 정선된 것이었다. 이탈리아쿠스도 시인으로 그의 많은 시작품으로 해서 장서가 상당히 많아졌기 때문에 몇 개의 별장에 책을 두었다고 전해진다. 라렌시스는 아우렐리우스 통치하의 성직자였는데 신학문헌으로 구성된 훌륭한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다른 개인도서관들이 일반화되었음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서 애호의 경향이 당시 로마 제국의 일반적 유행이 된 것과 병행해서 로마 시대에 있는 귀족들의 저택은 말할 것도 없고 교외에 있는 그들의 호화로운 별장에도 장서를 구비했을 정도였지만 학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장서들은 저택 내의 장식품 구실을 했다. 귀족들은 장서 수집을 위해 교유받은 노예를 고용하거나

또는 도서 무역상들의 손을 통해 그들의 필요를 만족시켰다.

18세기에 이태리의 학자에 의해 헤르쿨라네움의 발굴이 행해졌는데, 이 도시는 기원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 때 매몰된 것으로서 여기서 귀족의 별장으로 보이는 유적에서 다수의 파피루스 두루말이책이 발견되었다. 1,700개의 두루말이책 장서가 한 방에서 발견되었으며, 이 방은 천정까지 책장이 달아 있었고 두루말이책은 대부분이 꺼멓게 그을렸으며 아주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중 많은 두루말이책은 읽을 수가 있었는데 분명히 이 수집가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수집했으며, 그 장서의 대다수가 그리스인 철학자나 웅변가의 저작들이었다.

당시 로마의 교양있는 사람들은 그리스인의 작품을 즐겨 수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도서관들은 그 소유자의 부와 그 장서의 규모에 따라 물리적인 수용설비에 있어 다양하였다. 만일 몇 개의 roll만을 소유했을 경우 roll을 나무 상자나 모자 상자와 비슷한 곳에 보관했고, 그 장서가 더 증가될 경우는 특실이나 책상, 예술 작품 등이 있는 방에 보관했다. 현재 구라파의 여러 곳에 남아 있는 귀족들의 저택이나 그 안에 있는 개인도서관의 모습으로 추측할 때, 고대의 개인 도서관은 권력과 부의 상징답게 호화찬란했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 같다.

# 출판저널

통권 제100호 / 1992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壹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金芝媛 鄭素淵 崔兌源 鄭蕙玉 朴南貞  
디자인 — 尹貞子 南明希  
사진 — 金弘鎭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允淳 金收姬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宰彬 | 琴章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衡尹 | 徐淵昊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永     |
| 安輝滂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相     |
| 尹志寬 | 李康淑 | 李玟薰 | 李志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勛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馥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煒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爽鍾 | 鄭雲映 | 鄭晉錫     |
| 鄭鐵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賢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실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